

# '로컬 프리즘: 시선의 확장'

전주세계소리축제, 예술성·축제성 담은 올해 프로그램 소개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왕준)는 18일 하안양옥집(옛 전북도지사 관사)에서 프로그램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진행된 발표회는 이왕준 조직위원장과 김희선 집행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지영 콘텐츠운영부장이 올해 소리축제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이날 소리축제에 따르면 2024년 키워드 '로컬 프리즘: 시선의 확장'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공연예술제로서 소리축제의 역할을 공고히 한다. 소리축제의 '로컬'은 지역의 연결성과 확장성, 예술가와 관객의 상호작용, 다양한 예술가들의 협업, 전통음악에 대한 탐구와 실험을 포괄한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는 18일 하안양옥집에서 프로그램 발표회를 가졌다.

올해 프로그램은 예술성과 축제성을 강조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주요 실내 공연장에서는 수준 높은 한국의 전통예술과 클래식, 월드뮤직 등을 선보이며, 야외공연장에서는 대중성의 강화를 통해 관객들이 함께 신나게 뛰놀며 즐길 수 있는 '햇볕머 나잇' 콘셉트로 공연의 흥을 돋운다.

올해 개막공연은 <종물오페라 [집착X]>이다. 올해 소리축제 방향성을 상징하는 개막공연, 전북예술의 뿌리인 '농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축제의 피날레는 <조상현&신영희의 빅쇼>다. 1994~1998년까지 진행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 1995년에 방송된 '빅쇼 - 조상현&신영희, 소리로 한 세상'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특히, KBS국악관현악단을 비롯해 전북대학교 한국음악과 학생들과의 협업은 한층 수준 높고, 한국 전통예술 미래 자원들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는 의미 있는 무대로 채워진다.

8월 14~1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펼쳐지는 기획공연 '관소리 다섯방'은 올해의 처장 김경자(심청가)를 비롯해 현재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중견 명창 왕기석(수궁가), 채

수정(홍보가), 이자람(적벽가)의 공연이 준비된다. 이와 함께 라이징스타 박가빈(춘향가)의 무대가 예정됐다. 아울러, 전국 공모를 통해 블라인드 심사를 거쳐 선발된 50인의 소리꾼 김송지(수궁가), 이정인(홍보가), 강현영(춘향가), 박수범(적벽가), 조경규(심청가)의 공연도 전라감영에서 펼쳐진다.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와 피아니스트 임동혁, 한 사람의 공연만으로도 화제가 될 두 사람이 한무대에 오른다. 정경화와 임동혁의 첫 듀오 공연은 8월 16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관객들과 만난다. 또한 탄탄한 실력으로 인정받는 중견 앙상블 '제중솔로이스츠'는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전주를 찾는다.

대중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는 클래식뿐만 아니라 국악, 가요 등 다양한 음악 장르와의 협업을 하고 있으며, '슈퍼밴드2'와 '나혼자산다' 등의 출연으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연주자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다.

재즈 피아니스트 조운성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음악원에서 수학한 후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드는 활동을 하고 있다. 10장

의 정규 앨범과 투시드폴, 폴킴, 윤종신, 이상준, 이은이 등의 편곡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리축제 기간에는 평소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나라의 전통음악을 만나 볼 수 있다. 올해 주목해야 할 '폴란드 포커스'는 월드뮤직, 클래식, 재즈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갖고 있는 파워풀한 현악 5중주 폴란드 '볼로시'와 민요 소리꾼 '채수현'이 함께하는 콜라보 무대다.

이와 함께 아일랜드 켈틱 음악과 남부 이탈리아 타란텔라 음악인들이 결합된 '타란타 켈티카'와 네덜란드 출신 인도네시아 이민 3세대 음악가들로 구성된 '누산타라 비트'의 월드뮤직 크로스오버도 주목할 공연이다.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공연과 전시·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소리축제 기간 동안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 2층에서는 리어카를 극장으로 사용하는 재활용인형극 <피리 부는 리어가 할아버지>, 다양한 소형 악기를 활용하여 새로운 소리를 탐구하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폴란드 <마웨 인스트루먼트>, 나무통을 활용한 균형잡기 난버널 퍼포먼스 한국 우당탕탕 서커스 <목립삼>, 체코의 인형 마리오네트와 나무껍질, 레몬, 허브 등의 천연 재료 물감을 활용하여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체코의 오브제 씨어터 <리틀 비저터>를 만날 수 있다.

지난 4월 어린이 뮤지컬 <삼양동화> 입심을 시작으로 부안 <릴리 컴퍼니>까지 8개 시군을 찾은 '찾아가는 소리축제'가 올해 하반기에도 풍성하게 진행된다.

8월부터 10월 사이 완주, 남원, 김제, 장수, 무주에서는 수준 높은 해외 팀의 공연과 월드뮤직 워크숍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11월 30일 전주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는 송년 특별공연으로 조선 왕실이 탄생시킨 최고의 걸작 <종묘제례악>이 국립국악원 협력으로 마련됐다.

/장은성 기자

## 지역과 상생하는 '명승' 기대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 국가유산체제 전환 이후 첫 지정 사례 기록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18일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이 국가유산체제로 전환된 이후 첫 사례로 최종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망해사는 이름 그대로 '바다를 바라보는 절'이라는 뜻으로 642년 백제 의자왕 때 부설거사기 세운 것을 당나라 승려 증도법사가 중창했으며, 조선 선조 때의 이름난 선승 진복대사가 이곳에서 수행하며 낙사전과 갯나무를 심었던 유서 깊은 사찰이다.

'신중동국여지승람' 만경현 편에는 진봉산 망해사 일원에 '낙명대(落明臺)'가 있음이 기록되어 있어 예로부터 망해사 일대가 서해낙조의 명승였음이 확인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이 특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새만금의 중심이자 만경강 하구에 위치한 망해사의 생태학적·학술적 가치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으로 망해사 앞 바다가 담수화되면서 멸종위기 철새들의 안식처로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망해사 일원에 서식하는 수질정화식물 등이 새만금 환경문제에 있어 만경강 유입부에서 수질을 정화시키는 허파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향후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될 새만금일대의 환경문제에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서라도 망해사 일대의 명승지정이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간척의 역사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학술적 가치 또한 지니고 있어 이번 명승 지정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이 국가유산체제로 개편된 이후 첫 명승 지정 사례가 된 만큼 국가유산과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협력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승지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위기대응단'을 조직함에 따라 '김제 진봉산 망해사 일원' 명승지정은 지역과 함께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창작소극장 기획공연 '제로월드제로' 20일 개막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의 소공연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창작소극장(대표 류가연)이 오는 20일 '제로월드제로'를 무대에 올린다고 밝혔다.

18일 재단에 따르면 연극 장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창작소극장은 전주를 대표하는 소극장으로, 올해로 개관 35년차를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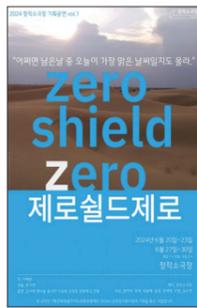
정통 연극뿐만 아니라 대학 연극 축제, 연극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도내 공연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창작소극장이 선보이는 첫 번째 기획 공연은 이예본 작가, 류가연 연출의 '제로월드제로'이다. 극의 배경은 2053년 기후 위기를 직면한 지구로, 오늘날의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 고민해야만 하는 문제를 기발한 상상력과 재치

넘치는 연기로 다룬 SF(공상과학) 장르 연극이다.

이예본 작가는 "비정상적인 지구의 흐름이 난무할 때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이뤄낸 모든 현상은 궁극적인 생존 불안의 원인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며, '제로월드제로'를 쓰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극을 통해 지금의 우리가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길, 또 더 많은 존재가 지구에서 평화로울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출을 맡은 류가연 대표는 "'제로월드제로'의 시간적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30년 후"라며 "과연 그때의 지구와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지 혹은 나빠질지에 대한 고민을 허황되지 않은 정교한 SF 소재에 담아냈다"고 연



출 방향을 전했다.

한편 홍석찬, 이종화, 강정호, 김서영, 최나솔, 장현태, 도건형 배우의 열연으로 큰 재미가 더해질 기획공연 '제로월드제로'는 오는 20~23일, 27~30일 평일 저녁 7시 30분, 주말 오후 3시 전주시 경원동

에 위치한 창작소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관람권은 전석 20,000원이며 예매 및 공연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에서 '창작극회' 또는 인터파크 티켓에서 검색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전북문화관광통합플랫폼 서비스 '순향'

전북문화관광통합플랫폼(www.jct.or.kr)이 운영 3개월 차를 맞아 일일 방문객이 2,800명을 넘는 등 순항하고 있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에 따르면 플랫폼은 올해 3월부터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정보 제공 서비스와, 이용자 간 소통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확대, 운영 중이다.

이 중 '함께!전북' 페이지는 전북자치도의 문화·예술, 관광인을 소개하는 페이지로, 문

화·예술, 관광인이 자신을 직접 알릴 수 있도록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6월 기준 총 100명의 문화·예술, 관광인이 등록을 마쳤다.

또 '놀자!전북', '가자!전북' 페이지는 전북자치도 14개 시·군에서 이뤄지는 모든 문화·예술, 관광 공연, 전시 및 축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문화·예술, 관광시설과 추천 관광코스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플랫폼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무주군 최북미술관 상반기 교육프로그램 작품 결과전 개최

무주군 최북미술관 상반기 교육프로그램 작품 결과전이 오는 30일까지 2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전시 참여 받은 '심인 드로잉 클래스(기초 소묘, 드로잉 작품 35점)'와 '시니어 예술 치유(도자조형물, 회화 등 57점)'로 20명이 총 92점의 작품을 내놓았다.

18일 열린 오픈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참여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소감 발표와

격려, 작품관람의 시간을 가졌다.

시니어 예술 치유에 참여한 이종숙 여르신은 "생전 처음 도자기도 만들어보고 붓도 잡아봤다"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던 분야에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고 무엇보다 같은 걸 배우며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선화당

###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하강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